



#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상현·정대희·박슬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김종선 연구위원 061-820-2210 sun589@krei.re.kr  
내 용 문 의 김상현 연구위원 061-820-2280 sanghyun@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KREI 농정포커스 제219호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4. 1.  
발 행 인 한두봉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농업 ODA 확대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상현·정대희·박슬기

### 요약

####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증가 추세,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

- 2021년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31억 5,652만 달러로 정부의 ODA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함.
- 우리나라 ODA는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지원대상국을 다변화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농업 ODA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8.6%로 증가하는 추세임. 농업 ODA 5대 중점 지원분야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 및 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으로 농업 ODA 전체의 82.3%를 차지함.

#### 농업 ODA 증가에 따라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 추세

- OECD/DAC 회원국 가운데 농업 ODA 상위 5대 공여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대상 지난 20년 동안 농업 ODA와 농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농업 ODA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 K-Food+(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위 5대 공여국과 같이 농업 ODA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위 5대 수원국으로의 K-Food+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ODA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별로 실증 분석한 결과, 농업 ODA가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와 K-Food+ 수출 연계 필요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ODA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직접 연계되어 이뤄지는 원조 관행을 지양하는 추세임. ODA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ODA 지원 목적상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임.
-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업 위상을 제고하고 농식품 및 농기자재 국내기업이 수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ODA와 연계된 K-농업 해외 전파에 지속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도국들의 인구와 1인당 GDP는 2000년 대비 2028년까지 연평균 1.3%, 5.5%씩 지속 성장할 전망임. 개발도상국의 소비시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잠재 수요국이기 때문에 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K-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강점을 살린 ODA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임.

## 01



##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현황

## 1.1. OECD ODA 지원 개황

OECD 주요 회원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은 개발도상국의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

- 글로벌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 또는 지역 간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변화 및 환경파괴, 질병 확산 등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초국가적 과제들이 대두됨. 특히, 이런 글로벌 위기 속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정적 불안정 문제는 글로벌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서 국제사회는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ODA 총액은 2,354억 달러(명목가격 기준)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지만, 2012~21년 10년 동안 연평균 4.9%로 지속 성장함<표 1>.

- 세계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30개 회원국<sup>1)</sup>의 비중이 높고 대부분 무상원조의 형태로 지원됨. 2021년 OECD/DAC 회원국의 ODA 지원이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다자기구가 31.1%, DAC 비회원국이 7.8%를 차지함<그림 1>.

표 1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

단위: 10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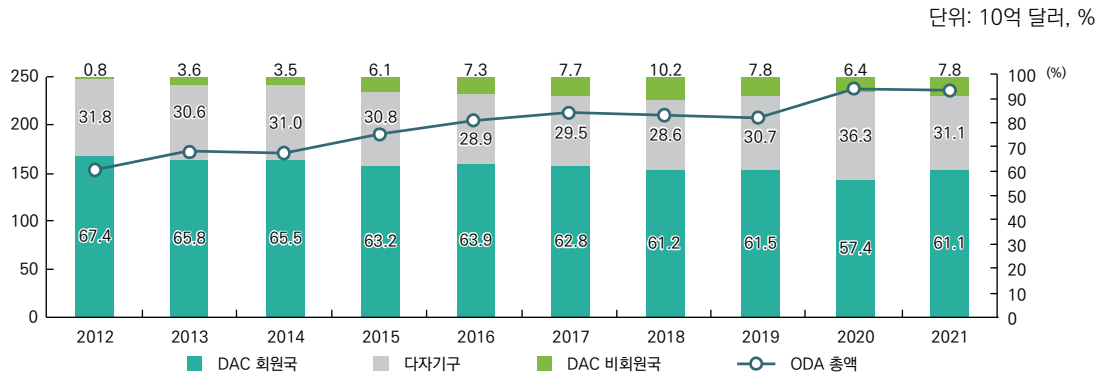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ODA 총액	149.5	167.5	166.1	168.2	182.3	192.1	196.6	192.2	224.6	235.4
무상 비율	75.9	74.5	74.7	74.4	76.4	75.3	75.5	75.3	68.7	73.9
유상 비율	23.0	24.5	24.3	25.0	23.1	24.0	23.9	23.8	30.4	25.0
DAC 회원국	101.3	110.1	108.3	105.6	115.4	119.5	119.6	117.8	128.9	143.7
무상 비율	84.9	84.8	84.0	84.0	85.6	83.9	83.9	83.7	79.2	81.3
유상 비율	13.6	14.6	15.0	15.0	14.4	15.7	15.7	15.6	20.2	17.1
다자기구	47.0	51.4	52.1	51.1	51.5	55.7	56.0	58.3	81.1	73.3
무상 비율	57.0	55.9	54.3	54.3	56.3	56.3	55.8	56.5	49.4	54.7
유상 비율	42.8	43.9	45.5	45.5	43.2	43.5	43.7	43.1	50.2	45.1
DAC 비회원국	1.2	6.0	5.8	11.6	15.4	17.0	21.1	16.1	14.6	18.4
무상 비율	54.4	59.0	91.8	69.5	74.8	78.4	81.7	84.8	89.1	92.6
유상 비율	45.6	41.0	8.2	26.6	21.4	18.5	17.3	14.1	10.6	7.4

주: 지원 규모는 명목가격으로 평가된 총 지출액 기준이며, 무상·유상 지원 이외에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의 직접투자는 제외함.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회원국이 참여함.

그림 1 공적개발원조(ODA) 공여 그룹 현황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21년 ODA 총 지출액 기준, OECD/DAC 30개 회원국이 지원하는 상위 10대 수원국<sup>2)</sup>은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요르단, 인도네시아, 시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예멘 등임<표 2>.

- 지난 10년 동안 최빈개도국 또는 중저소득국인 인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등이 상위 수원국에 지속 포함됨.

표 2 OECD/DAC 회원국 지원 대상 상위 10대 수원국

순위	2012	2013	2016	2017	2020	2021
1	아프가니스탄 (5.5)	미얀마 (5.9)	아프가니스탄 (2.8)	인도 (3.4)	인도 (2.9)	인도 (3.6)
2	베트남 (3.1)	아프가니스탄 (3.9)	인도 (2.5)	아프가니스탄 (2.4)	방글라데시 (2.6)	방글라데시 (2.5)
3	인도 (2.7)	인도 (2.7)	시리아 (2.1)	시리아 (2.2)	인도네시아 (2.5)	아프가니스탄 (2.4)
4	코트디부아르 (2.3)	베트남 (2.6)	베트남 (2.1)	방글라데시 (2.0)	시리아 (1.9)	에티오피아 (1.8)
5	케냐 (2.0)	케냐 (2.0)	쿠바 (2.0)	이라크 (1.9)	에티오피아 (1.8)	요르단 (1.7)
6	인도네시아 (2.0)	인도네시아 (1.9)	에티오피아 (1.8)	에티오피아 (1.9)	아프가니스탄 (1.8)	인도네시아 (1.7)
7	중국 (1.9)	탄자니아 (1.9)	요르단 (1.7)	베트남 (1.8)	요르단 (1.8)	시리아 (1.6)
8	에티오피아 (1.8)	에티오피아 (1.8)	인도네시아 (1.7)	인도네시아 (1.7)	이라크 (1.7)	필리핀 (1.4)
9	탄자니아 (1.8)	파키스탄 (1.7)	이라크 (1.7)	요르단 (1.7)	소말리아 (1.6)	콜롬비아 (1.4)
10	파키스탄 (1.7)	시리아 (1.6)	파키스탄 (1.6)	튀르키예 (1.6)	콜롬비아 (1.5)	예멘 (1.3)
합계	(24.7)	(26.0)	(19.9)	(20.6)	(20.2)	(19.3)

주: 괄호는 DAC 회원국의 ODA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2) OECD 2022년 기준, ODA 수원국은 최빈개도국(LDCs) 46개국, 저소득국(LICs)(1인당 국민총소득 1,045달러 이하) 3개국, 중저소득국(LMICs)(1,406~4,095달러) 36개국, 고중소득국(UMICs)(4,096~1만 2,695달러) 57개국 등 총 142개국으로 구성됨(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 검색일: 2023. 11. 13.).

2019~21년 기준 DAC 회원국의 양자성 ODA는 사회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인도주의적 원조, 공여국 내 난민지원, 생산 부문 등에 주로 지원됨. 최근 농업 ODA 비율은 전체의 3.4%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0.5%p 감소했지만, 지원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함(표 3).

- 지난 10년(2012~21년) 동안 인구, 용수공급 및 위생, 무역정책 및 규제, 여행, 상품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원조, 부채감면 등에 대한 ODA 지원은 감소함. 공여국 내 난민지원, 보건, 인도주의적 원조, 금융 분야의 ODA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표 3 OECD/DAC 회원국의 ODA 분야별 지원현황

지원 분야		2012~14 비율(%)	2019~21 비율(%)	2012~21 증감률(%)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8.2	7.6	1.5
	보건	5.4	7.8	12.1
	인구	7.2	5.3	-0.6
	용수공급 및 위생	4.0	2.9	-1.5
	정부 및 시민사회	12.2	11.0	0.4
	기타(사회보장, 고용, 주택, 노동 등)	2.3	2.6	5.3
	소계	39.3	37.2	2.8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수송 및 저장	6.1	5.6	1.6
	통신	0.3	0.2	0.1
	에너지	4.6	4.8	1.9
	금융	2.0	2.5	9.2
	기업 및 기타 서비스	1.2	1.2	5.7
	소계	14.1	14.4	3.2
생산 부문	농림업	4.5	4.1	1.6
	농업	3.9	3.4	1.1
	임업	0.5	0.5	4.4
	수산업	0.2	0.2	3.3
	제조업, 광업, 건설	1.3	1.7	5.8
	무역정책 및 규제	0.8	0.4	-2.0
	관광	0.1	0.0	-13.6
	소계	6.7	6.3	2.0
다부문/공통현안(도농개발, 재해관리,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등)		9.4	8.8	3.4
상품원조/일반 프로그램 원조		3.6	2.6	-0.1
부채감면		3.7	0.6	-13.8
인도주의적 원조		10.1	14.3	11.0
공여국 행정비용		6.2	6.8	3.8
공여국 내 난민지원		5.0	8.0	12.5
기타		1.8	1.1	-3.6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OECD/DAC 회원국들의 양자성 농업 ODA는 농업개발,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연구, 농업용수, 농업금융서비스, 식량작물생산, 농업서비스, 농업기술개발, 농업 교육 및 훈련, 특용작물 및 수출작물, 농경지개발, 농업협동조합, 축산, 농업투입재, 농촌지도, 가축 및 위생 서비스, 농정개혁, 작물 수확 전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에 제공됨.

- DAC 회원국의 농업 ODA 지원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 증가하는 가운데 특용작물 및 수출작물,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협동조합, 축산부문 등의 ODA 지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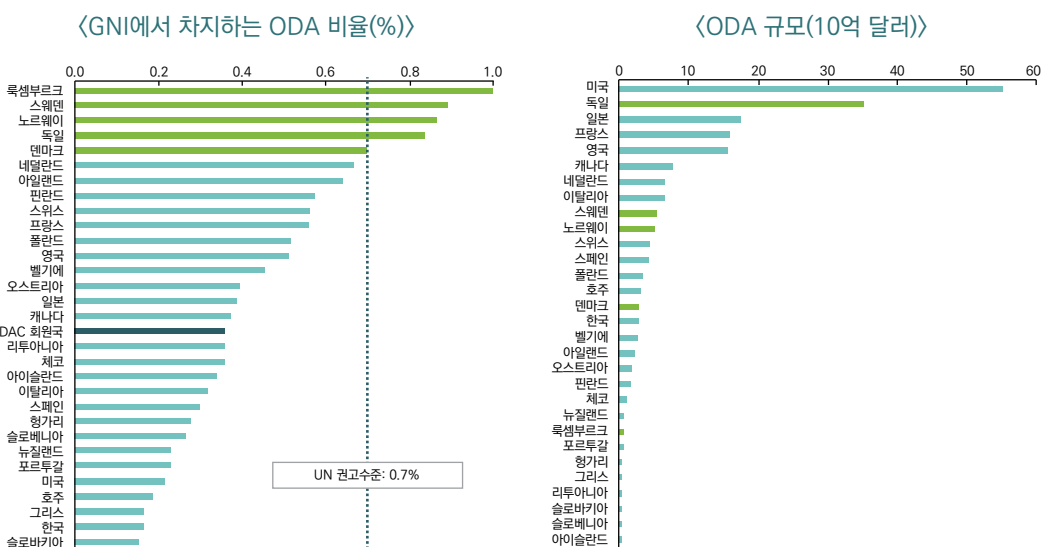
**표 4** OECD/DAC 회원국의 ODA 농업 지원현황

농업 부문	2012~14 비율(%)	2019~21 비율(%)	2012~21 증감률(%)
농업개발	37.8	30.1	-1.7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13.1	22.1	7.6
농업연구	11.7	10.6	0.8
농업용수	10.8	8.4	-0.5
농업금융서비스	2.9	5.6	-0.3
식량작물생산	4.2	4.7	1.1
농업서비스	2.6	2.8	3.6
농업기술개발	3.9	2.6	-3.8
농업 교육 및 훈련	2.2	2.3	4.1
특용작물 및 수출작물	0.8	2.2	10.4
농경지	2.3	2.2	1.6
농업협동조합	1.3	1.8	6.7
축산	1.1	1.4	5.2
농업투입재	1.7	1.1	-10.8
농촌지도	1.3	1.0	-2.3
가족 및 위생 서비스	0.9	0.4	-1.7
농정개혁	1.0	0.4	-16.6
수확 전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0.3	0.2	-0.9
농업 전체	100.0	100.0	1.1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UN 공여국별 ODA 권고 수준(ODA/국민총소득(GNI)의 비율 0.7% 유지 권고) 이상인 DAC 회원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이고,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은 0.36%이며 한국은 0.17%임. 2022년 증여등가액<sup>3)</sup> 기준 최대 지원국은 미국이며, 다음으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순임.

**그림 2** OECD/DAC 회원국별 2022년 ODA 지원현황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3) OECD는 2018년부터 ODA 실적보고를 지출액 기준에서 연간 지출액에 증여율을 반영한 증여등가액(rant equivalents)으로 발표함.

## 1.2. 주요 공여국 농업 ODA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sup>4)</su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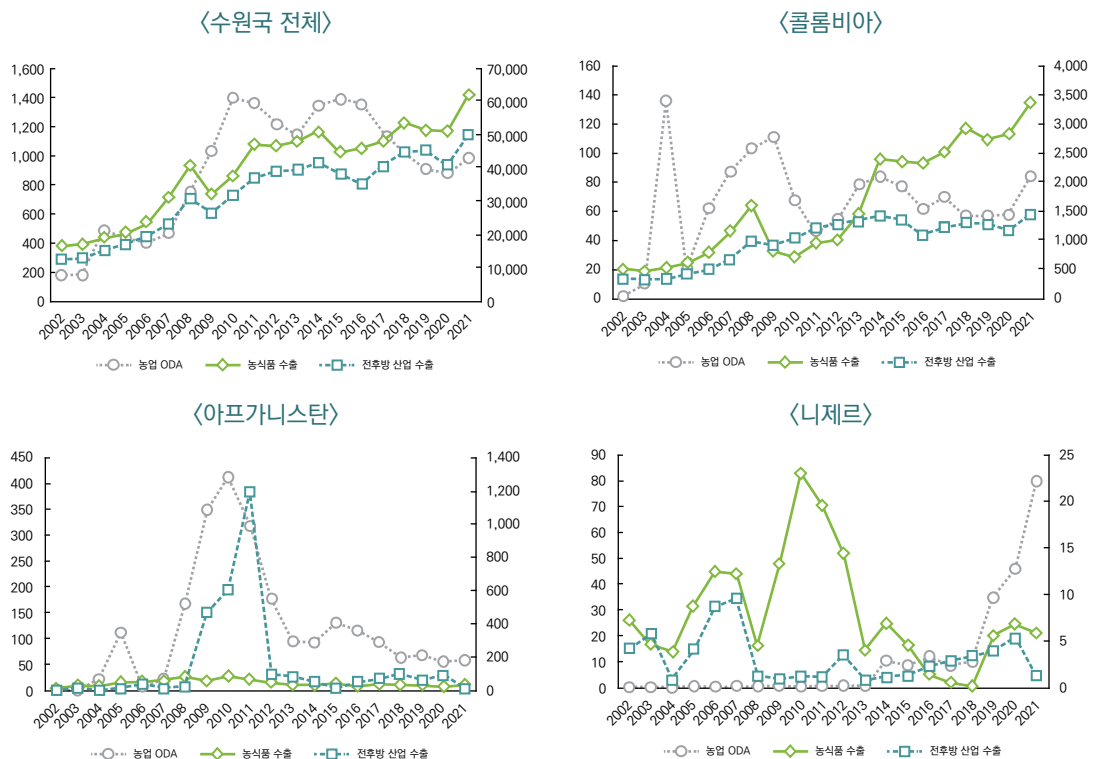
3개년(2019~21년) 평균 기준, OECD/DAC 회원국 중 농업 ODA 상위 5대 공여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과 해당 공여국의 상위 5대 중점 수원국을 대상으로 농업 ODA와 수출 관계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농업 ODA의 증가 추세 속에서 공여국들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부표 1 참조).

### 미국

- 미국의 농업 ODA는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식품 수출이 전후방산업 수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 미국의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케냐, 에티오피아 순으로, 이들 국가 중 콜롬비아는 농업 ODA 지원과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남. 아프리카 지역인 니제르, 케냐, 에티오피아로의 농식품 수출은 기간별 편차는 있으나 최근 4개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반면 아프리카니스탄은 미국의 2위 농업 ODA 수원국이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지난 10년 동안 매우 낮은 수준임.

그림 3 미국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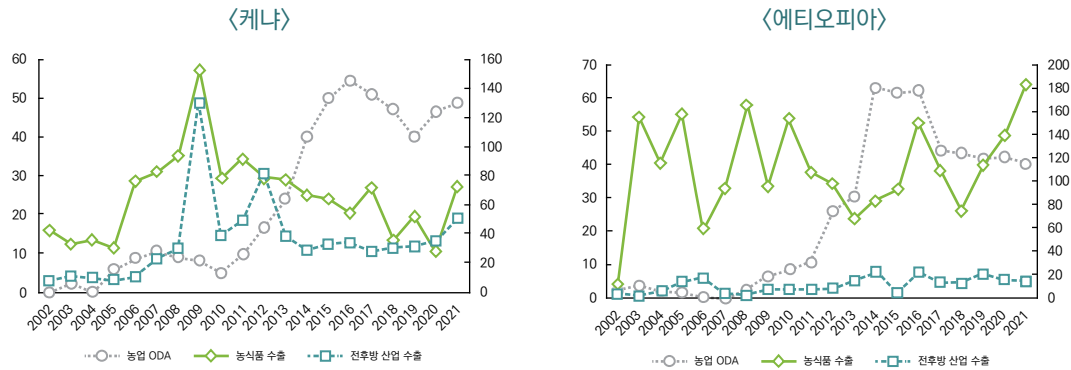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우축: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4) 본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은 HS code 기준 01~24류(03류 제외)이며, 전후방산업은 시설원예, 축산시설, 친환경농자재, 동물약품, 농약 및 작물보호 제품, 농기계, 비료 등을 의미하며 세부 HS code는 <부표 2>를 참조.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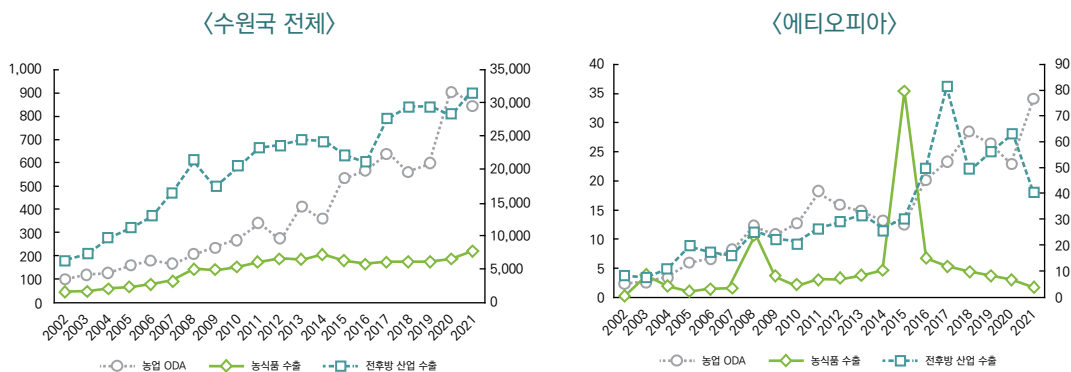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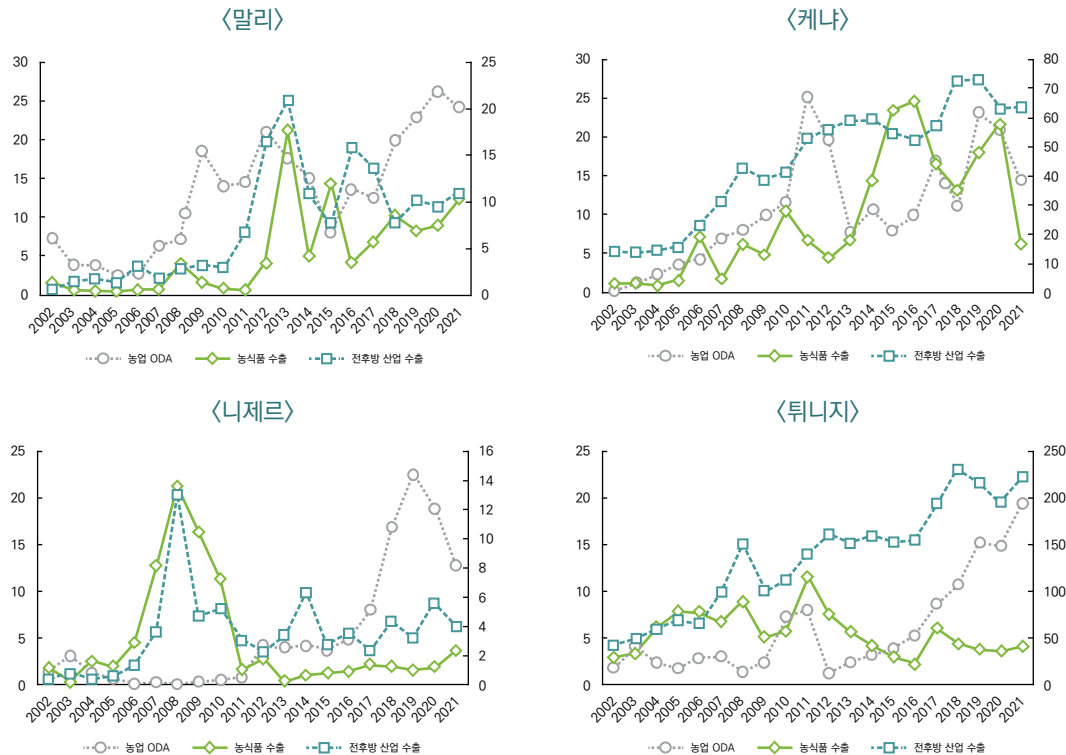
- 독일의 농업 ODA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전후방산업 수출은 2021년 기준 321억 달러를 보이며 높은 수준을 기록함(그림 4).
- 독일의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에티오피아, 말리, 케냐, 니제르, 튀니지 국가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임.
- 독일의 **에티오피아** 농업 ODA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식품 수출은 2015년 급감한 이후 미미한 수준이며,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7년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임. 반면 튀니지 또한 독일의 농업 ODA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독일의 **튀니지** 농식품 수출은 정체되어 있으나, 전후방산업 수출은 증가 추세임.
- 독일의 **케냐** 농업 ODA는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전후방산업 수출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식품 수출은 2021년 큰 폭으로 감소함. **에티오피아** 농업 ODA 및 농식품 수출은 다른 양상을 보임. 독일의 **에티오피아** 농업 ODA는 201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2009년 높은 수준을 달성한 후 감소 및 정체됨.

**그림 4** 독일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우축: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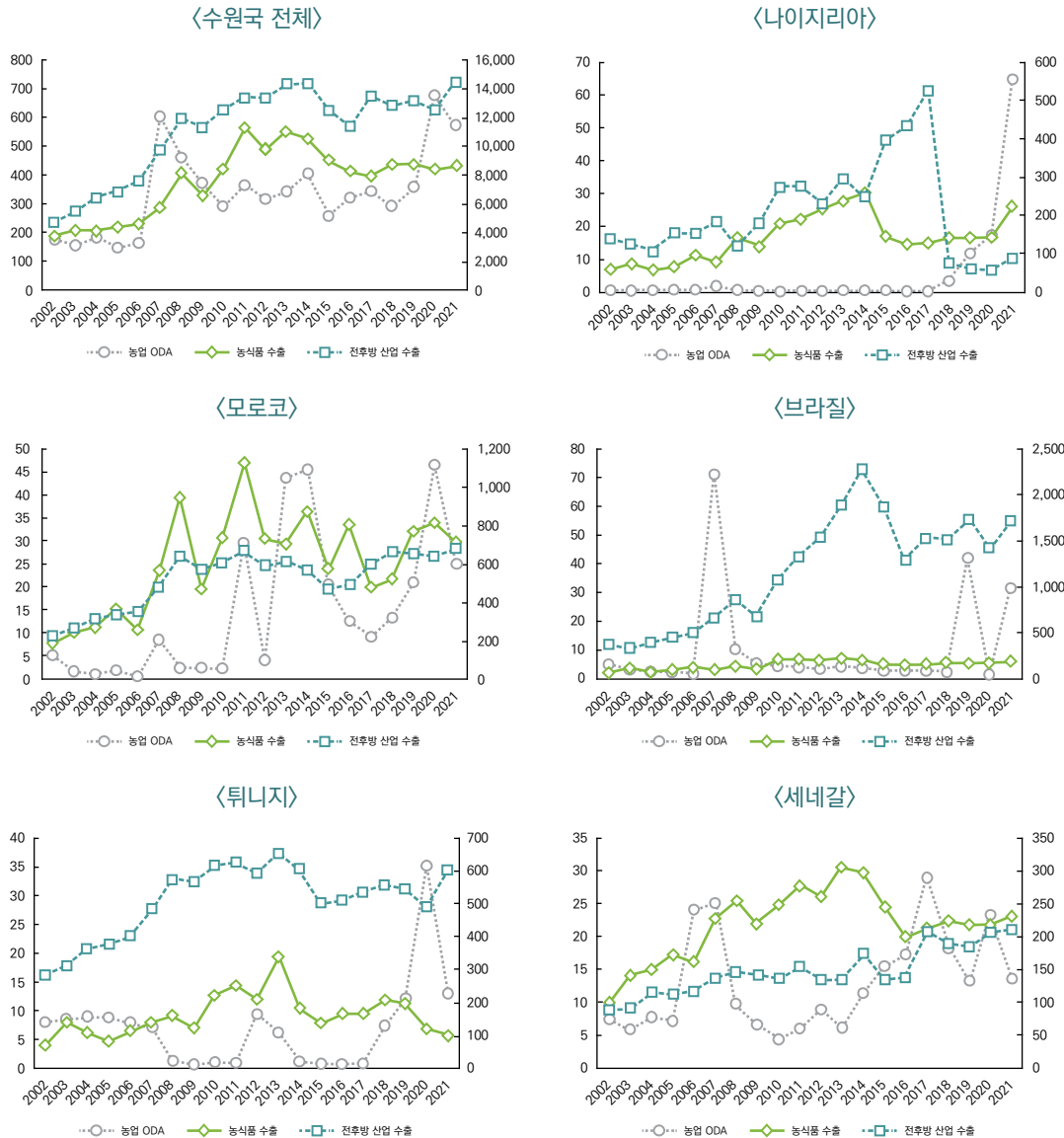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 프랑스

- 프랑스의 농업 ODA 지출은 2007년 이후 감소하였지만 2019년 이후 반등함. 프랑스의 對수원국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을 보면 농식품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7년 이후 정체되다 2021년 상승함(그림 5).
- 프랑스의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나이지리아, 모로코, 브라질, 튀니지, 세네갈 순으로 프랑스 또한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ODA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의 농업 ODA 1위 수원국인 나이지리아로의 농업 ODA 규모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7년 이후 급감함. 프랑스의 對모로코, 對브라질, 對튀니지, 對세네갈 전후방산업 수출은 2002년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반면 對모로코 농식품 수출은 농업 ODA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연도별 변동성이 높음. 對브라질, 對튀니지, 對세네갈 농식품 수출은 최근 5개년 동안 정체되어 있거나 미미한 수준임.

그림 5 프랑스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우축: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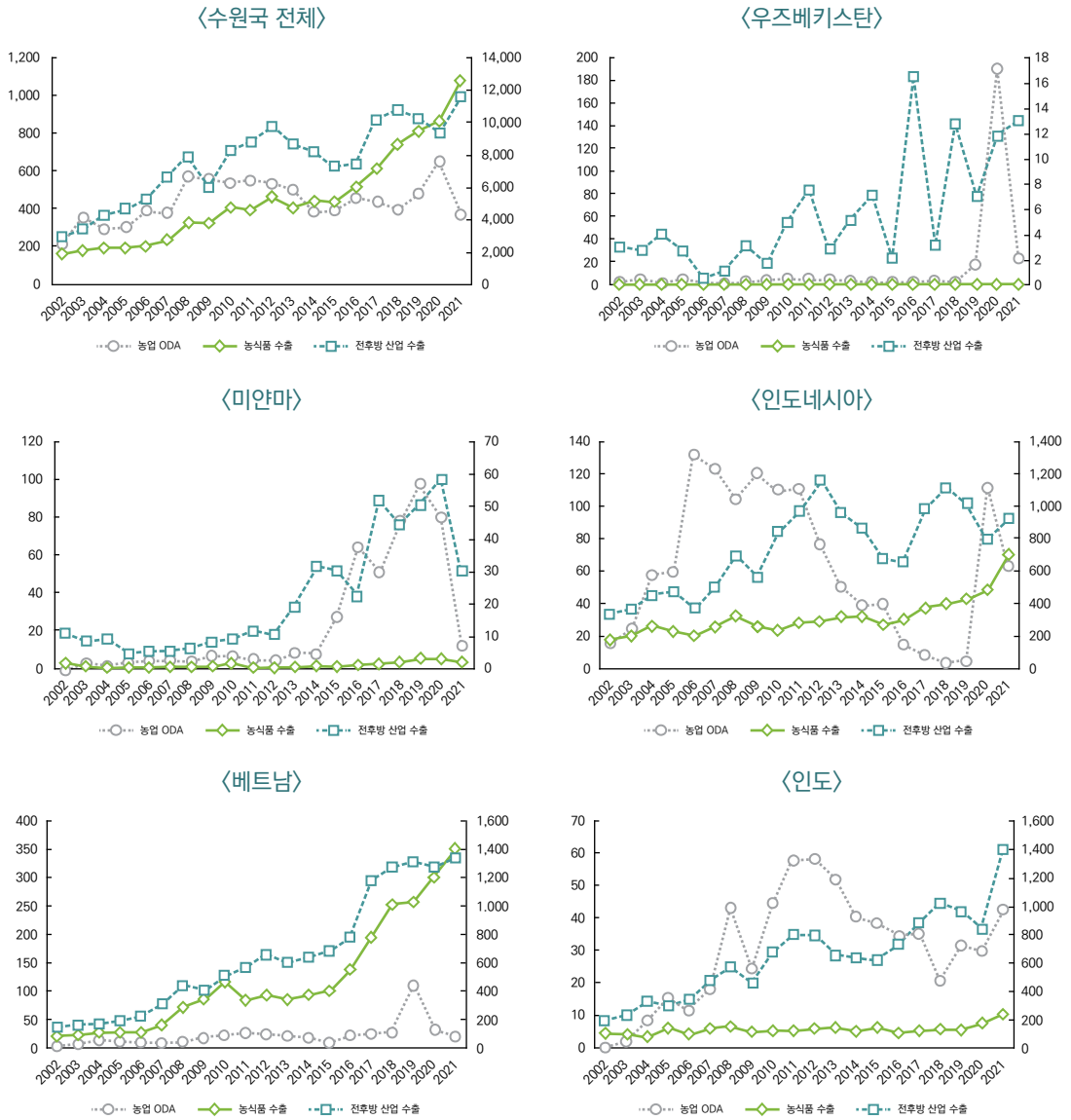
일본

- 일본의 농업 ODA는 평균 5억 달러 수준으로 2020년 6억 5천만 달러로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3억 7천만 달러로 감소함. 반면, 수원국으로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주요 수원국은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으로 주로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최근 3개년 평균 일본의 농업 ODA 상위 1, 2위 수원국인 우즈베키스탄, 미얀마로의 농식품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나 이들 국가로의 전후방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對미얀마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농업 ODA 지원 및 전후방산업 수출이 크게 감소함. 일본의

對인도네시아, 對베트남, 對인도 농업 ODA는 최근 3년간 증가했으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그림 6 일본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농식품 수출, 우축: 전후방산업 수출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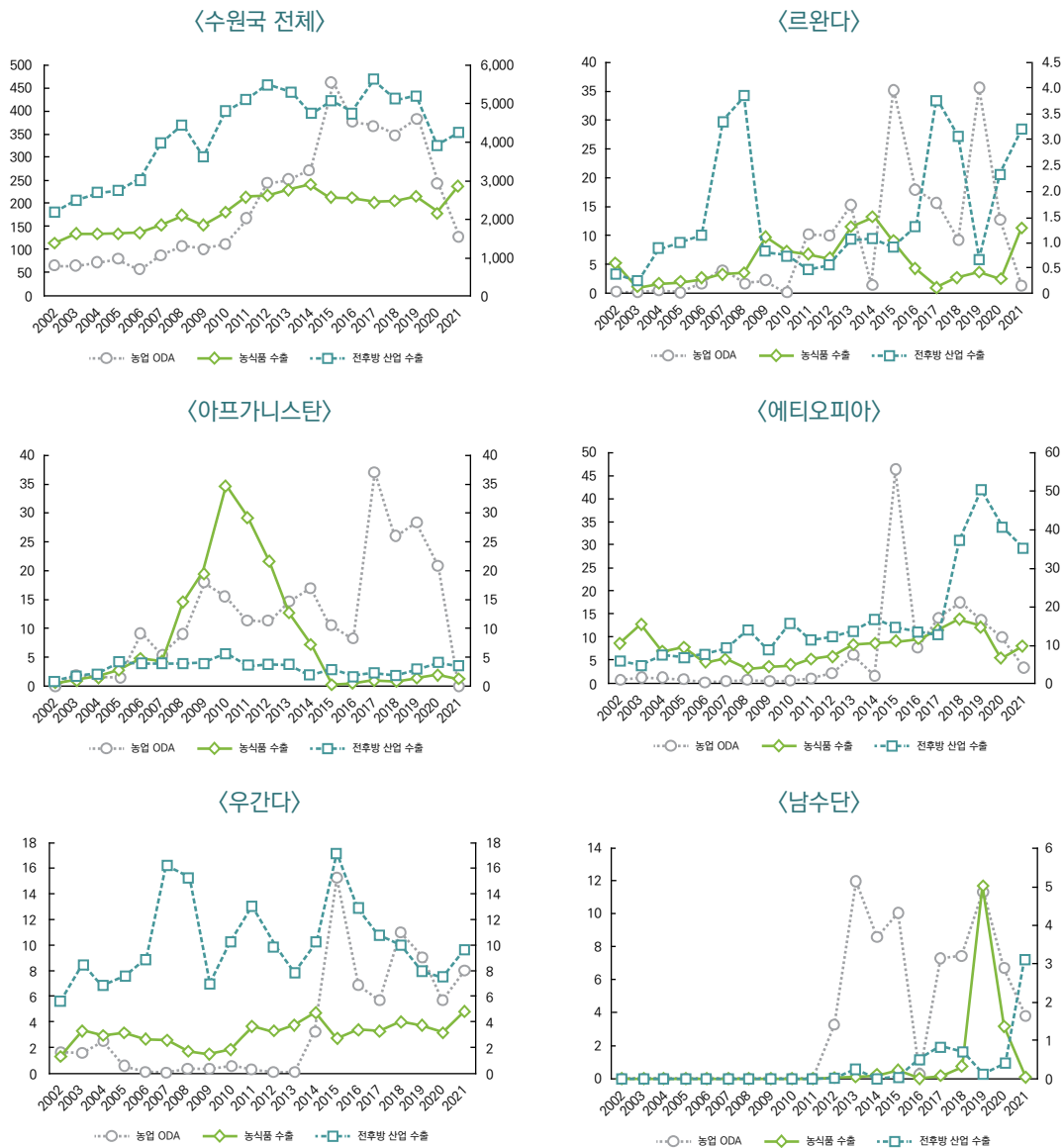
영국

- 영국의 농업 ODA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함. 영국의 수원국과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9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수출이 감소한 후 2021년 다시 회복세를 보임.

- 영국의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우간다, 남수단 등으로 주로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ODA 지출이 많음. 그러나 주요 수원국으로의 농업 ODA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임. 영국의 최근 3개년 평균 농업 ODA 1위 수원국인 르완다는 2019년 이후 농업 ODA가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3개년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증가함.
- 對에티오피아 농업 ODA,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모두 최근 3개년 감소함. 영국의 對우간다 농업 ODA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5년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1년 소폭 증가함. 對남수단 농업 ODA 및 농식품 수출이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전후방산업 수출은 증가함.

**그림 7** 영국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우축: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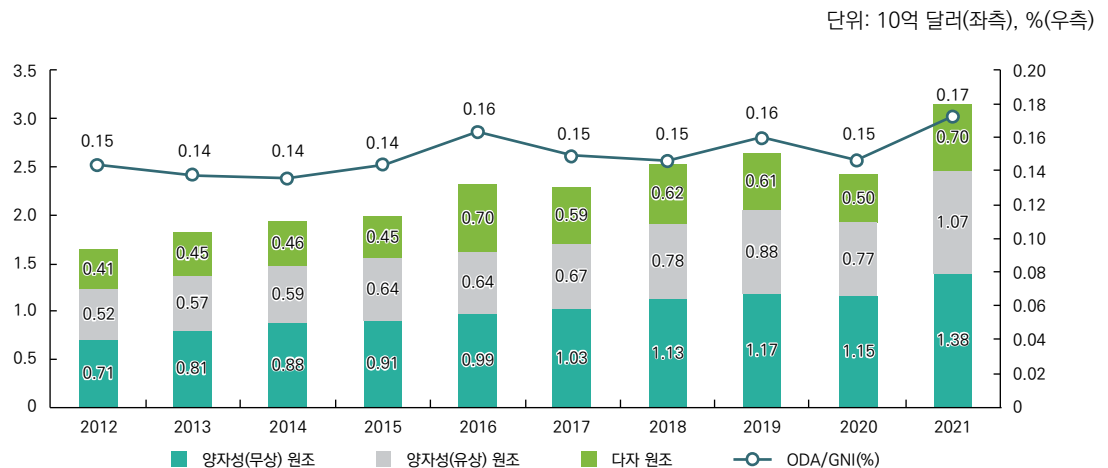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지원현황 및 수출

## 2.1. 우리나라 ODA 지원현황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ODA 지원 실적이 일시 감소했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ODA 예산 확대 노력에 힘입어 상승세를 유지함. 2021년 ODA/GNI 비율은 UN 권고에 미치지 못하는 0.17% 수준이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그림 8).

- 2021년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사상 최대 금액인 31억 5,652만 달러를 기록함. 2012~21년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양자성 원조의 비율이 66.9~79.4%로 다자성 원조보다 3배 정도 많음. 양자성 원조 가운데 무상원조의 비율이 42.5~47.6%, 유상원조의 비율은 27.5~33.8%를 차지함.<sup>5)</sup>

그림 8 우리나라 ODA 전체 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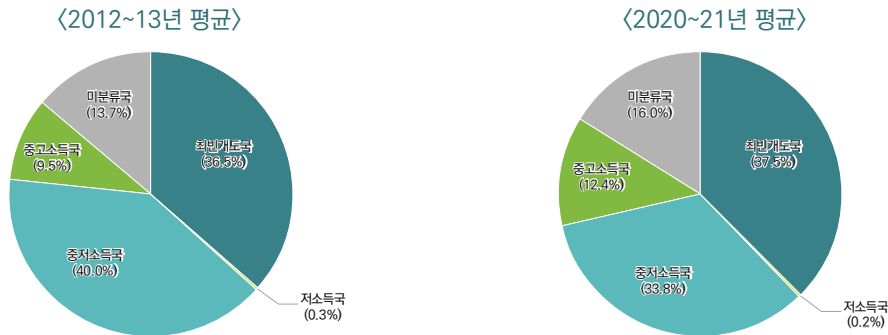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하위 중소소득국 중심으로 ODA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중고소득국과 최빈개도국의 지원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중저소득국의 비율은 소폭 감소함(그림 9).

5) 양자성 ODA는 원조 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직접 지원을 의미하고, 다자성 ODA는 세계은행,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자 및 분담금을 통한 간접 지원을 의미함.

**그림 9** 우리나라 소득 그룹별 ODA 지원현황(양자성 ODA)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점협력국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여 ODA 지원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음.

- 반면 상위 10대·20대 수원국에 대한 ODA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비율이 각각 46%, 6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집중도는 높은 편임(표 5).

**표 5** 우리나라 ODA 지원 상위 10대 수원국<sup>6)</sup>

순위	2012	2013	2016	2017	2020	2021
1	베트남 (16.8)	베트남 (17.6)	베트남 (11.4)	베트남 (11.0)	필리핀 (8.2)	방글라데시 (9.6)
2	아프가니스탄 (6.4)	아프가니스탄 (8.9)	탄자니아 (4.0)	미얀마 (4.6)	베트남 (7.1)	필리핀 (7.5)
3	캄보디아 (4.7)	캄보디아 (4.6)	필리핀 (3.9)	캄보디아 (4.2)	방글라데시 (5.9)	콜롬비아 (5.2)
4	스리랑카 (4.6)	모잠비크 (4.2)	에티오피아 (3.8)	우즈베키스탄 (3.5)	미얀마 (5.7)	캄보디아 (5.0)
5	탄자니아 (4.1)	탄자니아 (4.1)	캄보디아 (3.5)	인도네시아 (3.4)	에티오피아 (5.6)	베트남 (4.4)
6	방글라데시 (3.9)	스리랑카 (3.7)	아프가니스탄 (3.2)	라오스 (3.3)	캄보디아 (5.3)	에티오피아 (3.6)
7	인도네시아 (3.6)	방글라데시 (3.5)	인도네시아 (3.1)	가나 (2.8)	탄자니아 (4.8)	이집트 (3.1)
8	몽골 (2.8)	필리핀 (3.2)	미얀마 (2.9)	에티오피아 (2.8)	파라과이 (3.4)	인도네시아 (2.7)
9	필리핀 (2.7)	인도네시아 (2.8)	모잠비크 (2.8)	필리핀 (2.4)	우즈베키스탄 (3.0)	라오스 (2.6)
10	세네갈 (2.6)	파키스탄 (2.6)	몽골 (2.6)	방글라데시 (2.4)	인도네시아 (2.7)	탄자니아 (2.4)
상위 5위	(19.8)	(21.8)	(15.2)	(15.6)	(24.3)	(21.9)
상위 10위	(52.3)	(55.4)	(41.3)	(40.3)	(51.6)	(45.9)
상위 20위	(69.4)	(70.4)	(60.5)	(58.5)	(64.2)	(61.3)

주: 괄호는 양자성 ODA 전체 지출액 대비 각 수원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6) 우리나라 ODA 지원대상국은 89개국이고, 지역별로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함. 중점협력국의 경우 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중동/CIS 4개국 등 27개국이고, 일반협력국은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25개국, 중남미 12개국, 중동/CIS 14개국, 오세아니아/기타 5개국 등 62개국으로 구성됨.

우리나라의 양자성 ODA는 OECD/DAC 통계지침에 따라 사회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생산부문, 다 부문/공동현안, 상품원조 및 일반프로그램, 부채감면, 인도주의적 원조, 공여국 행정비용, 공여국 내 난민 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표 6).

-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고용, 주택, 노동 등의 기타 분야, 보건 및 인구 분야의 ODA 지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기업 및 기타 서비스, 금융 등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분야에 대한 ODA 지원도 증가함. 반면, 통신, 상품원조 및 일반 프로그램, 공여국 내 난민 지원 등의 분야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
- 최근 3개년 우리나라 농업 ODA 지출 규모는 양자성 ODA 전체의 5.5%를 차지함. 10년 전과 비교하여 비율이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가 증가하여 연평균 8.6%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6 우리나라 양자성 ODA 분야별 지원현황

지원 분야		2012~14 비율(%)	2019~21 비율(%)	2012~2021 증감률(%)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교육	16.00	10.17	-0.04
	보건	10.41	22.02	19.26
	인구	0.85	0.76	13.98
	용수공급 및 위생	9.49	10.11	5.81
	정부 및 시민사회	7.32	5.70	4.88
	기타(사회보장, 고용, 주택, 노동 등)	2.15	3.10	23.72
	소계	46.23	51.87	9.63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수송 및 저장	17.50	11.72	3.01
	통신	3.56	0.91	-12.10
	에너지	6.44	5.44	6.98
	금융	0.14	0.19	13.49
	기업 및 기타 서비스	0.19	0.21	16.24
	소계	27.82	18.46	2.57
생산 부문	농림업	6.93	6.61	9.43
	농업	5.86	5.52	8.57
	임업	0.72	0.67	10.99
	수산업	0.35	0.42	19.20
	제조업, 광업, 건설	1.43	1.41	12.04
	무역정책 및 규제	0.61	0.37	0.94
	관광	0.12	0.19	11.91
	소계	9.10	8.59	9.43
다부문/공동현안(도농개발, 재해관리,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등)		6.36	4.47	-0.97
상품원조/일반 프로그램 원조		0.07	0.18	-17.69
부채감면		-	-	-
인도주의적 원조		2.85	6.49	28.88
공여국 행정비용		4.24	4.49	6.50
공여국 내 난민지원		-	0.05	-33.68 <sup>1)</sup>
기타		3.32	5.40	17.08
총 양자성 ODA		100.00	100.00	7.95

주: (1)은 2018~21년 4개년 연평균 증감률(%)임.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우리나라 농업 ODA 지출액이 전체 양자성 ODA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대에 머물고 있음. 최근 3개년 농업 지출액 가운데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 및 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음(표 7).

- 이들 5대 부문이 농업 ODA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2.3%에 달하고 있어 농업 ODA 지원 집중도가 높음. 농업기술개발, 농업서비스, 농업금융 서비스, 농업협동조합, 수확 전후 관리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촌지도, 농경지, 축산, 농업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 감소하는 추세임.

표 7 우리나라 농업 ODA 지원현황

농업 부문	2012~14 비율(%)	2019~21 비율(%)	2012~2021 증감률(%)
농업개발	52.94	38.28	4.56
농업용수	12.95	21.90	10.62
농업 교육 및 훈련	8.04	12.05	18.15
농업서비스	0.50	5.51	87.58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50	4.94	16.93
식량작물생산	3.38	4.04	12.36
축산	7.59	2.82	-4.57
농업협동조합	0.28	2.71	28.55
농업금융서비스	0.07	2.34	56.77 <sup>1)</sup>
농업투입재	1.20	1.47	10.84
특용작물 및 수출 작물	1.16	1.06	7.51
농경지	2.17	0.83	-6.40
농업기술개발	-	0.83	383.51 <sup>2)</sup>
농촌지도	2.79	0.50	-14.38
수확 전후 관리 및 병해충방제	0.59	0.47	20.31 <sup>3)</sup>
농업연구	1.53	0.40	-0.01
가축 및 위생 서비스	2.52	0.40	5.56
농정개혁	-	-	-
농업 전체	100.00	100.00	8.57

주 1) 2013~21년 연평균 증감률(%)

2) 2020~21년 연평균 증감률(%)

3) 2013~20년 연평균 증감률(%)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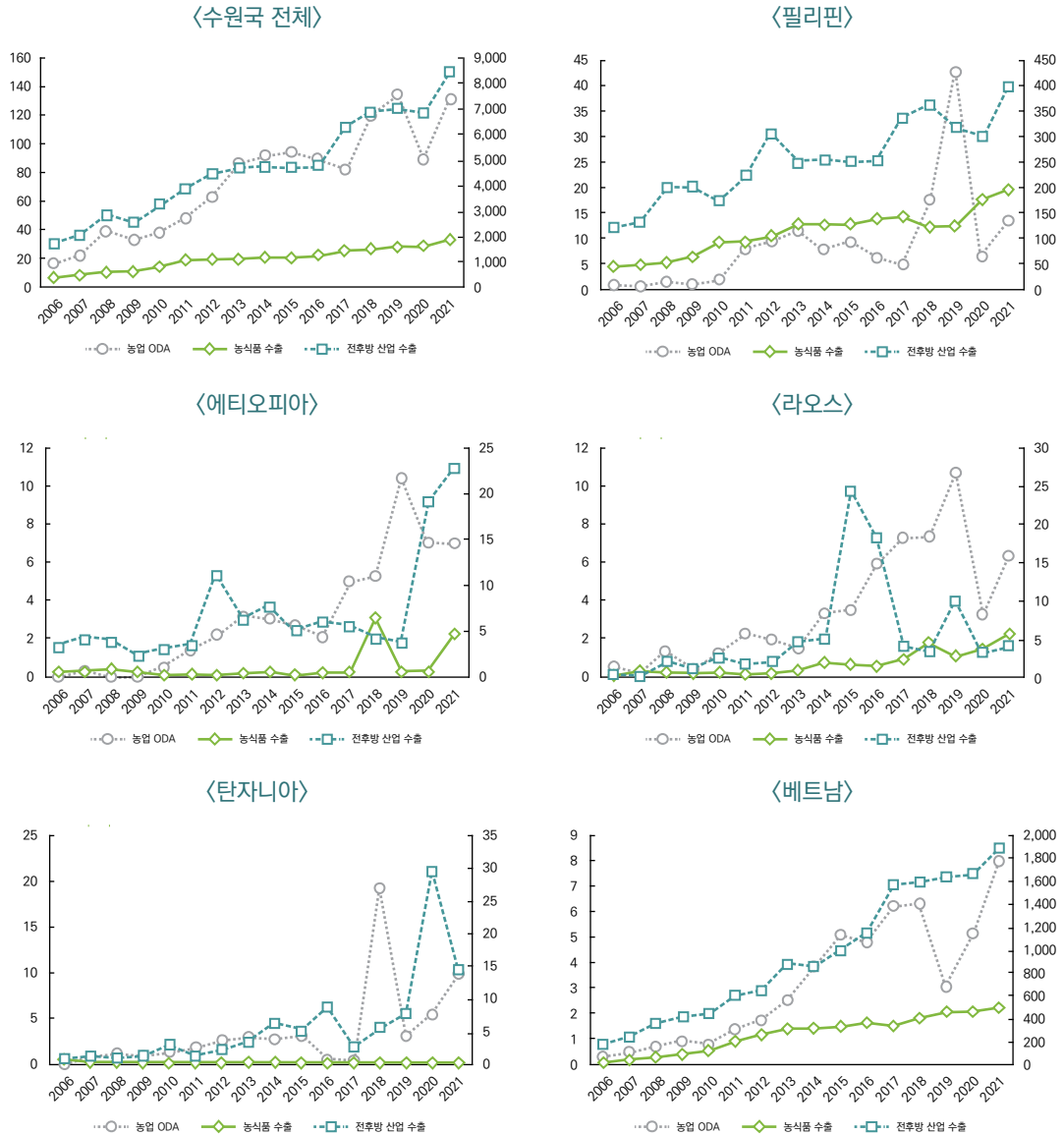
## 2.2. 우리나라 농업 ODA와 K-Food+ 수출 현황

우리나라 농업 ODA 현황과 농식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농업 ODA 지원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ODA 수원국으로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또한 증가 추세를 보임(그림 10).

- 우리나라의 농업 ODA 주요 수원국은 필리핀, 에티오피아, 라오스, 탄자니아, 베트남 등으로 이들 국가 중 對필리핀과 對베트남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반면, 對에티오피아의 전후방산업 수출은 2019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對라오스는 농식품 수출 규모가 크지 않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0 우리나라의 농업 ODA 및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좌축: 농업 ODA, 우축: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자료: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WITS Trade data(<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 03



## 농업 OD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1. 분석모형 및 데이터

무역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ODA가 K-Food+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추정 방법은 PPML(Poisson pseudo-maximum-likelihood)을 활용함.

- 일반적인 log-log 형태의 중력모형은 분석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이분산성 문제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 국가 간 교역이 0이거나 0에 가까울수록 데이터상 편차가 커서 이분산성을 갖게 될 수 있고 추정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Silva & Tenreyro(2006)에서 제시한 PPML(Poisson pseudo-maximum-likelihood) 추정 방법을 활용함.

농업 ODA와 수출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을 구분하여 분석함. 모형1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ODA가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모형 2에서는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모형 1은 농식품 수출을 종속변수로 다음과 같이 설정함. 중력모형의 기본 모형인 GDP와 거리변수, 연도더미를 포함하였으며,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농업 ODA를 설명변수로 설정함. 또한 ODA 수원국 중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분석을 수행함.
- 모형 2는 우리나라 농업 ODA가 농업분야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설명변수는 모형 1과 동일함.

$$\text{모형 1 } AGEX_{jt} = \exp[\beta_0 + \beta_1 \ln(GDP_{jt}) + \beta_2 \ln(Distance_j) + \beta_3 \ln(ODA_{jt}) + \delta Year] \epsilon_{jt}$$

$$\text{모형 2 } DUEX_{jt} = \exp[\beta_0 + \beta_1 \ln(GDP_{jt}) + \beta_2 \ln(Distance_j) + \beta_3 \ln(ODA_{jt}) + \delta Year] \epsilon_{jt}$$

- 분석기간은 우리나라 농업 ODA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 농업 ODA 수원국을 분석대상으로 함. 다만 OECD 수원국 중 중국이 포함되어 있으나 중국은 고소득국가이며, 최근 우리나라의 對중국 농업 ODA 지출이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함.
- 우리나라 수출데이터는 World Bank의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GDP는 World Bank Indicator의 자료를 사용함. 거리변수는 CEPII에서 제공하는 국가의 수도 간의 거리를 사용하였으며, 농업 ODA 데이터는 OECD CRS의 데이터를 활용함.
- 관측치 1,645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표 9>와 같음.

표 8 주요 변수 설명

변수명	설명	출처
$AGEX_{jt}$	한국의 對수원국(j) t년도 농식품 수출액(백만 달러)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DUEX_{jt}$	한국의 對수원국(j) t년도 전후방산업 수출액(백만 달러)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ln(GDP_{jt})$	한국 ODA 수원국(j)의 1인당 실질 GDP (2015년 기준, US 달러)	World Bank Indicator
$\ln(Distance_j)$	한국과 ODA 수원국(j) 간의 거리(km)	CEPII
$\ln(ODA_{jt})$	한국의 對수원국(j) t년도 농업 ODA 지출액(백만 달러)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

자료: 저자 작성.

표 9 기초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AGEX_{jt}$	1645	10.53	39.48
$DUEX_{jt}$	1645	45.33	146.86
$\ln(GDP_{jt})$	1645	7.76	0.98
$\ln(Distance_j)$	1645	9.09	0.50
$\ln(ODA_{jt})$	1645	0.29	0.53

자료: 저자 작성.

### 3.2. 분석 결과

전체 수원국 대상 한국의 농업 공적개발원조는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지역별 분석 시 한국의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농업 ODA는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전후방산업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 (모형 1: 농식품 수출) GDP 및 거리변수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무역이론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농업 ODA 변수 또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어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ODA와 농식품 수출과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 ODA는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농업 ODA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정(+)의 효과를 보여 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로의 농업 ODA가 한국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모형2: 전후방산업 수출) 전체 수원국 대상 농업 ODA가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모형1과 같이 GDP, 거리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값이 도출되었으며, 농업 ODA 또한 한국 전후방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지역별 분석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농업 ODA는 전후방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Reset 검정 시 5% 유의수준에서 모형 설정의 오류가 존재함. 반면, 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의 농업 ODA도 정(+)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으로의 농업 ODA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전후방산업 수출로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0 농업 ODA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명	(모형1) 종속변수: 농식품 수출				(모형2) 종속변수: 전후방산업 수출			
	전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전체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ln(GDP_{jt})$	0.68*** (0.06)	0.65*** (0.13)	0.66*** (0.12)	0.66*** (0.12)	0.72*** (0.07)	0.76*** (0.07)	0.39** (0.12)	0.39** (0.12)
$\ln(Distance_j)$	-2.20*** (0.09)	-1.67* (0.78)	-1.52*** (0.24)	-1.52*** (0.24)	-1.50*** (0.10)	-5.16*** (0.45)	-1.41*** (0.27)	-1.41*** (0.27)
$\ln(ODA_{jt})$	0.44*** (0.06)	0.21 (0.19)	0.43*** (0.11)	0.43*** (0.11)	0.30*** (0.08)	0.42*** (0.10)	0.11 (0.13)	0.11 (0.13)
상수항	15.26*** (0.98)	8.46 (7.65)	9.95*** (2.32)	9.95*** (2.32)	10.54*** (1.11)	43.11*** (4.26)	12.66*** (2.58)	12.66*** (2.58)
연도더미(Year)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Reset 검정	0.161	0.289	0.214	0.079	0.684	0.000	0.216	0.264

주 1) 괄호는 표준오차이며,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냄.

2) Ramsey Reset 검증 결과 아프리카 대상 모형2를 제외하고 PPML을 활용한 중력모형 설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됨.

자료: 저자 작성.

## 04



## 요약 및 시사점

- 다양한 역사, 문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들은 국가의 목표, 국익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수원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함. 2021년 ODA 지원 총액은 사상 최대인 2,354억 달러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복합위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9% 성장함.
- OECD/DAC 30개 회원국의 ODA 지원 규모는 전체 ODA 규모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 무상 원조의 형태로 이뤄짐. 상위 10대 수원국은 인도,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 에티오피아, 요르단, 인도네시아, 시리아, 필리핀, 콜롬비아, 예멘 등임.
- 2019~21년 OECD/DAC 회원국의 수원국 대상 양자성 ODA는 사회와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인도주의적 원조, 공여국 내 난민지원, 생산부문 등에 주로 지원됨. 최근 농업부문 ODA 비율이 전체의 3.4%로 10년 전 대비 0.5%p 감소했지만 지원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하는 추세임.
- 전 세계 ODA 지원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ODA 지원 실적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시 감소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ODA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유지함. 2021년 우리나라 ODA 지원액은 사상 최대인 31억 5,652만 달러를 기록했고, 2012~21년 전체 ODA에서 차지하는 양자성 원조의 비율이 66.9~79.4%로 다자성 원조보다 3배 정도 많은 수준임.
-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하위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ODA를 지원하는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함. 최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 중점협력국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등 ODA 지원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원국 대상 양자성 ODA는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를 중점 지원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고용·주택·노동, 보건 및 인구 분야에 대한 ODA 지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농업 ODA 지출 규모는 전체 양자성 ODA의 5.5%를 차지하고 10년 전과 비교하여 비중이 감소했지만, 절대 규모의 증가로 연평균 8.6%로 증가하는 추세임. 최근 3개년 우리나라 농업 ODA는 농업개발, 농업용수, 농업 교육 및 훈련, 농업서비스,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등에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농업 ODA의 82.3%를 차지하고 있어 ODA 지원 집중도가 높은 편임.
- OECD/DAC 회원국 가운데 농업 ODA 상위 5개 공여국(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대상 지난 20년 동안 농업 ODA와 농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원국별 일부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농업 ODA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개발원조를 수출과 연계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농업 ODA와 전체 수원국으로의 K-Food+(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추이를 살펴본 결과, OECD/DAC 상위 5대 공여국과 같이 농업 ODA 지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상위 5대 수원국으로의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또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농업 ODA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농업 ODA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향후 농업 ODA 분야별 지원 규모와 K-Food+수출과의 연계성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의 농업 ODA를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지역별로 살펴볼 때, 아시아 중점협력국으로의 농업 ODA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K-Food의 위상이 높아져 농식품 수출은 증가하지만, 아직 전후방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 반면 최근 중남미와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으로의 ODA 지원이 증가하는 등 원조 대상국이 다변화되는 추세이지만, 아프리카 대상 농식품 수출,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전후방산업 수출이 ODA 지원과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지역의 ODA 확대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강점을 기반으로 한 지역별 맞춤형 ODA 사업을 보급 확대하여 지속적인 현지 수요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가 수출 등 경제적 동기와 연계되어 이뤄지는 관행을 지양하고 있음. ODA를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는 ODA 지원 목적상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임. 하지만, K-농업 확산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업의 위상을 제고하여 국내 농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함.
- 최근 정부는 2027년까지 ODA 규모를 2배로 확대 추진하여 K-라이스벨트, K-스마트팜, K-디지털 농업 등 우리나라 농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브랜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임. 단기적으로 이런 전략적 브랜드 사업이 유·무상 원조로 이뤄지겠지만, 장기적으로 한국형 전략사업이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K-Food+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개도국들의 인구나 1인당 GDP는 2000년 대비 2028년까지 각각 연평균 1.3%, 5.5%씩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소비시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식품뿐만 아니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잠재 수요국임. 따라서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지원 과정에서 ODA를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부록



부표 1 주요 DAC 회원국의 농업 ODA 지출총액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2	2005	2010	2015	2019	2020	2021	3개년 평균	비율
1	미국	177.5	427.6	1398.2	1390.4	915.2	881.5	987.2	928.0	20.9
2	독일	99.6	159.9	268.5	538.0	600.6	909.9	848.8	786.4	17.7
3	프랑스	179.5	146.6	290.8	254.1	353.5	675.4	571.5	533.4	12.0
4	일본	243.9	364.1	547.7	387.4	481.3	651.5	371.9	501.6	11.3
5	영국	63.4	83.6	114.4	465.2	389.1	248.2	131.9	256.4	5.8
6	네덜란드	62.5	74.3	72.7	151.3	242.3	244.8	241.1	242.7	5.5
7	캐나다	33.5	74.0	545.4	162.9	136.2	191.9	247.2	191.8	4.3
8	스위스	43.9	64.8	62.9	132.5	119.7	132.3	142.6	131.5	3.0
9	스웨덴	26.9	50.8	64.2	62.3	115.6	117.5	138.2	123.8	2.8
10	한국	-	-	37.8	94.2	134.4	89.4	130.7	118.2	2.7
전체		1100.4	1756.3	4533.6	4264.0	4069.0	4788.0	4463.7	4440.2	100.0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부표 2 전후방산업 관련 HS code

상품군	HS code
시설원예	730661, 392061, 392062, 392190, 560391, 761699, 630399, 903210, 841451, 392390, 391732, 680610, 847982, 530500, 392690, 010641, 392010, 560312, 731210, 732690, 850151, 848390, 842539, 853710, 840220, 841620, 731029, 848140, 841911, 841459
축산시설	843490
친환경농자재	010649, 140490, 250300, 252010, 270210, 270300, 270799, 380700, 382499
동물의약품	050610, 050690, 050790, 051000, 051110, 051199, 110812, 110813, 110819, 130219, 150210, 150300, 150500, 150600, 150890, 151610, 152000, 152200, 170211, 170219, 170230, 210210, 210220, 230990, 281000, 283325, 283329, 283510, 283719, 283990, 284150, 284190, 285210, 290129, 290382, 290389, 290391, 290517, 290545, 290549, 290611, 290613, 290713, 290949, 290960, 291010, 291219, 291529, 291570, 291590, 291615, 291631, 291639, 291814, 291816, 291818, 291819, 291821, 291822, 291823, 291829, 291830, 291910, 291990, 292011, 292090, 292119, 292141, 292142, 292143, 292146, 292149, 292159, 292231, 292239, 292241, 292244, 292249, 292250, 292310, 292411, 292419, 292421, 292424, 292429, 292800, 293040, 293080, 293090, 293319, 293329, 293331, 293349, 293352, 293353, 293354, 293359, 293369, 293391, 293399, 293491, 293499, 293492, 293510, 293520, 293530, 293540, 293550, 293590, 293621, 293622, 293623, 293624, 293625, 293626, 293627, 293628, 293629, 293690, 293711, 293712, 293719, 293721, 293722, 293723, 293729, 293750, 293790, 293890, 293920, 293930, 293941, 293942, 293943, 293944,



(계속)

상품군	HS code
	293949, 293951, 293959, 293945, 293972, 293979, 293980, 294000, 294110, 294120, 294130, 294140, 294150, 294190, 300120, 300190, 382211, 300212, 300213, 382212, 382219, 300214, 300215, 300242, 300290, 300249, 300390, 300490, 300510, 300590, 300610, 382213, 300630, 300660, 300670, 300692, 320412, 320419, 320500, 330290, 330300, 330491, 330510, 330520, 330530, 330590, 330610, 330690, 330710, 330720, 330730, 330741, 340231, 340239, 340241, 340242, 340249, 340290, 340420, 340700, 350110, 350190, 350220, 350290, 350300, 350400, 350510, 350710, 350790, 380852, 380859, 380861, 380862, 380869, 380891, 380892, 380894, 381190, 382100, 382311, 382312, 382319, 382370, 382720, 382712, 382731, 382732, 382739, 382713, 382714, 382740, 382751, 382759, 382761, 382762, 382763, 382764, 382765, 382768, 382769, 382790, 382481, 382482, 382483, 382530, 382561, 382569, 390599, 391390, 960200, 300310, 300320, 300331, 300339, 300341, 300342, 300343, 300349, 300360, 300410, 300420, 300439, 300441, 300442, 300443, 300449, 300450, 300460, 901811, 901812, 901813, 901814, 901819, 901820, 901839, 901841, 901849, 901850, 901890, 901910, 901920, 902110, 902121, 902129, 902139, 902140, 902150, 902190, 902212, 902213, 902214, 902221, 902720, 902750, 940290
농약 및 작물보호	282550, 282741, 290930, 290950, 291479, 291539, 291619, 291620, 291899, 292019, 292412, 292425, 292519, 292529, 292690, 293020, 293030, 293149, 293159, 293190, 293219, 293220, 293299, 293311, 293339, 293379, 293410, 293420, 380893, 292029, 293154
농기계	870110, 870191, 870192, 870193, 870194, 870195, 820840, 842490, 843290, 843390, 843691, 843699, 843790, 842951, 843210, 843221, 843229, 843241, 843242, 843280, 843330, 871620, 843621, 843629, 843680, 841381, 840731, 840732, 840733, 840734, 840820, 843710, 843780, 843340, 843351, 843352, 843353, 843359, 841933, 841934, 843311, 843319, 843320, 843231, 843239, 842441, 842449, 842482, 843610, 843360, 820110, 820130, 820140, 820150, 820160, 820190, 870590, 843410, 843420
비료	3101, 3102, 3103, 3104, 3105

자료: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https://www.maps.or.kr/newame/ameTaxrateExport/ameTaxrateExport.do?menuId=mn\\_2303](https://www.maps.or.kr/newame/ameTaxrateExport/ameTaxrateExport.do?menuId=mn_2303)), 검색일: 2023. 11. 13.



## 참고문헌

- Silva, J. S. & S. Tenreyro(2006), The log of grav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4): 641-658.
- 농기자재수출정보서비스([https://www.maps.or.kr/newame/ameTaxrateExport/ameTaxrateExport.do?menuId=mn\\_2303](https://www.maps.or.kr/newame/ameTaxrateExport/ameTaxrateExport.do?menuId=mn_2303)),  
검색일: 2023. 11. 13.
- CEPII([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_modele\\_item.asp?id=6](http://www.cepii.fr/CEPII/en/bdd_modele/bdd_modele_item.asp?id=6)), 검색일: 2023. 12. 6.
- OECD DAC List of ODA Recipients(<https://web-archiv.e.oecd.org/2022-11-07/616607-DAC-List-of-ODA-Recipients-for-reporting-2022-23-flows.pdf>), 검색일: 2023. 11. 13.
- OECD.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CRS)(<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 검색일: 2023. 10. 15.
- WITS(<http://wits.worldbank.org/WITS/WITS/AdvanceQuery/RawTradeData/QueryDefinition.aspx?Page=RawTradeData>), 검색일: 2023. 10. 15.
- World Bank Indicator(<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KD>), 검색일: 2023. 12.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